

## 수능 비문학, 정답은 없다.

안녕하세요, 한때 칼럼 쓰던, 그리고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고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2022학년도 수능 이후 비문학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아 제 나름의 생각을 여러분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 말도 틀릴 수 있는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니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읽어주세요.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2021학년도 수능에서 98점을 받았던 수험생입니다. 다시 수능을 준비하다가 건강 문제로 수능을 접게 된 이후, 머리로 어떻게 하면 수능 비문학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끊임없이 사고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내용과 2022학년도 수능을 분석하면서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수능 비문학이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늘 비문학에서 막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수능 국어는 문학, 언어와 매체, 비문학, 화법과 작문 모두 공통적으로 '주어진 글을 읽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문학을 비롯한 다른 영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형이 정해져있고, 그렇기에 '무엇을 독해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바탕으로 어떻게 읽어야 할지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준이 평가원 시험 및 수능에서 유효하게 통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비문학은 다릅니다. 아무리 강사들이 귀납적인 행동영역을 제시해준다고 해도, 평가원이 들고 온 추론을 요구하는 선지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설령 그게 유효하다고 해도 소위 말하는 독법의 '체화'에 성공한 이는 극히 드뭅니다. 여기서 비문학만이 갖는 다른 영역들과의 특징이 나오는데, 강사들이 제시해주는 행동영역만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점과, 그게 유효하다는 것과 체화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저는 행동영역만으로는 모자란 비문학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은 바로 '이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해라는 영역은 굉장히 개인적이어서 사람마다 소화해내는 정도도 속도도 전부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매우 중요한 걸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이해하는 속도와 정도는 전부 다르다.'**

이는 강사들의 행동영역만으로 수능 비문학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해답이 됨과 동시에 왜 우리가 강사들의 휘황찬란한 독법을 체화하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능 비문학이라는 영역은 너무나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알고 있는 단어도, 읽을 때 취하고 있는 태도도 다른데 어떻게 일관된 행동영역을 주입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고, 또 어떻게 그 독법들을 완전히 체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술한 내용들을 통해 어떻게 해야 수능 국어 비문학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국어 독해에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목표는 강사가 알려주는 해설에 만족하고 그들의 풀이를 체화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사고과정과 행동영역을 **백과사전처럼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현장에서 이 지문과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사고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용하는 걸 넘어서서, 강사의 해설이 사후적인 게 아닌지 따져보기도 하고, 나만의 배경지식을 활용해 읽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나만의 이해의 기준을 확립해 일관되게 읽는 행동영역을 '스스로' 보충해나가는 것.

그것이 수능 국어 비문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에, 따끈따끈한 2022학년도 수능 사회 지문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문까지 첨부하기에는 칼럼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 지문은 각자 준비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문제는 배경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었던 2022학년도 수능 13번 문제입니다. 특히 ④번과 ⑤번이 문제가 되었는데, 선지에서 말하는 '환율-경상 수지'의 관계를 풀어내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초에 배경지식으로 환율과 경상 수지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직접 출제된 경우이니 배경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문제를 푸시면 깔끔히 해결됩니다.

둘째는 지문에서 환율과 경상 수지의 관계를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환율과 평가 절상/절하의 관계를 파악한 뒤, 대미 무역 흑자 상태에서의 상황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율과 경상 수지의 관계를 추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고 과정은 길지만, 평소 '경제 지문은 비례 관계에 주목하라.'라는 행동영역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라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셋째는 환율 그 자체의 정의를 활용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율'이라는 경제적 용어의 '환율이 오르면 그 가치는 떨어진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문에서는 설명해주지 않은 무역 예시를 직접 만들어 이해하는 방법으로, 경제 과목을 선택했거나 경제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행하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배경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사고할 법한 풀이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주요국들이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역에서 평가 절상은 그리 긍정적인 게 아니고 흑자인 입장에서 꺼리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를 수출입 관계와 연계하여 사고해 경상 수지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작년 수능 사회 지문에 딸린 13번을 풀기 위한 '환율-경상 수지'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사고하는 과정도 단순히 하나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많은 방법들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풀이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을 혼자 힘만으로 해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국어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학생이 아닌 이상, 상술한 것처럼 여러 가지의 풀이를 동시에 떠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헛갈리거나 난해한 지문들에 한해서라도 다양한 강사와 교재의 해설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태도를 확립하고, 확립한 태도를 사설 지문에 적용하며 생각의 틀을 침예하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썩과마늘이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활동했던 한 유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대입도 끝났으니 더 이상 오르비에 들어올 일은 없을 것 같으니 이 글을 끝으로 오르비랑은 작별이네요. 수험생활 동안 가장 고민했던 지점에 대해 쓴 글이니, 비교적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